



화성포장(주)

컬러골판지 설비 '프리프린트' 가동

자체시스템 운영의 묘로 제품생산 주력

골판지상자 전문제조업체인 화성포장(주)이 최근 영국 체트웍사에서 6도인쇄가 가능한 최첨단 옵셋인쇄설비인 프리프린트(Pre-Print)를 들여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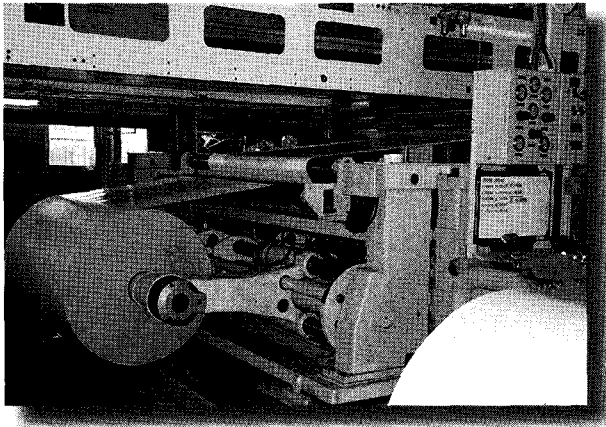
국내 첫 컬러골판지상자 양산체제인 이 설비는 인쇄물량을 하루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골판지상자 인쇄방식에서 탈피, 표면에 선행 인쇄한 후 Rewind시킨 Pre-Printing롤을 골판지상자로 제조하는 것으로 옵셋인쇄 방식으로는 충족할 수 없었던 생산성을 완전히 해결했다.

기획실 김성민 실장에 따르면 "인쇄상태는 옵셋을 능가하는 수준에 달하며, 이러한 최고급 컬러골판지상자를 옵셋상자보다 실제 큰 폭의 저렴한 단가로 공급하여 단기간에 대량 출하하게 되는 농산물상자는 물론이고 환경측면에 있어서 일체 무해한 수성잉크만을 사용하므로 식가공품 상자와 각종 전자제품 상자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덧붙여 "이렇듯 작은 선물용 상자에서부터 대형 냉장고 상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골판지상자에 컬러화를 실현시킨 화성포장 전 임직원은 한차원 높은 기술력, 최고의 신용과 제품의 질로서 골



◀ 신뢰받는 제품생산이 곧 화성의 자랑이다.



▲ Auto Rewind

판지포장의 고급화 실현 및 국내 골판지포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선행인쇄 선두주자

화성포장(주)이 들여온 프리프린팅 설비는 제주도 감귤 등 단기간에 대량 출하되는 농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골판지와 판지상자에 주로 이용하고 있다. 또 화장품상자 등 고급 포장상자 컬러인쇄에도 이 시설을 이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된 첨단 옵셋인쇄기는 포장지를 두루마리 상태에서 시전에 6도색상까지 인쇄할 수 있는 고기능 인쇄, 상자제조 설비로서 지금까지 골판지상자에 옵셋인쇄를 할 경우 별도로 옵셋인쇄한 포장지인 라이너지를 서로 합쳐 상자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가공비와 시간을 50% 이상 대폭 절약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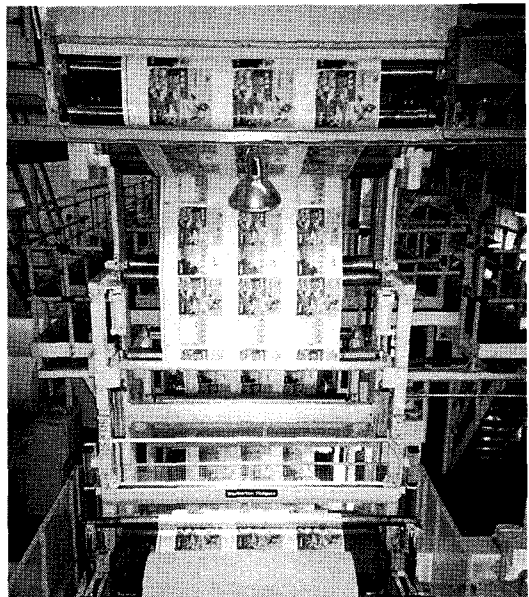
또 기존의 골늘림현상이 발생해 상자압축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도 해결해 보다 선명한 컬러인쇄를 빠른 속도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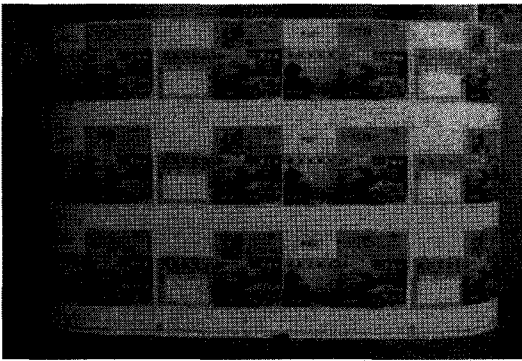
화성포장(주)의 박창원 사장은 “저희 화성포장은 포장의 기술력 향상과 공정 단순화, 그리고 저렴한 가격의 제품 공급의 일환으로 최첨단 기종의 프리프린트 생산설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1일 50t 이상의 컬러를 생산할 수 있으며, 무공해 수성잉크 사용으로 환경 친화적입니다. 또한 기존 옵셋 시스템의 30배 생산능력을 보유하며 7도 인쇄가 가능한 컬러 골판지상자를 생산해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당 250m까지 인쇄 가능 제품폭을 2,200mm까지 생산하고 다양한 수성코팅으로 실용성을 강화시켰다는 점입니다”라며 특징을 설명했다.

포장은 곧 광고

70년 화성포장공업사로 출발한 화성포장(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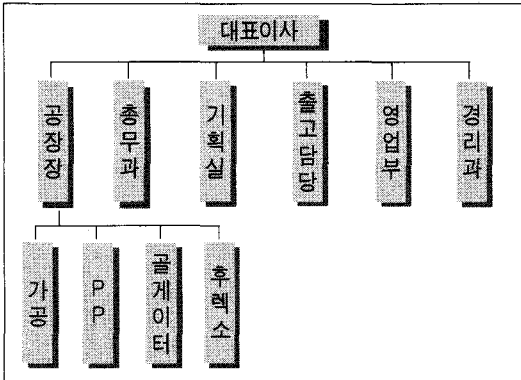


▲ 화성포장이 자신있게 선보인 Un Wind 프리프린팅기계



▲ 프리프린트로 인쇄된 제품

(표) 조직도



은 꾸준한 성장을 해 오다 지난 79년 갑작스런 부도로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 골판지와 거의 생활하다시피 한 박창원 사장에게는 큰 시련이었고, 이 업계를 정리할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일념으로 다시 골판지 기계에 기름칠을 하며 지금까지 왔다고 회고했다.

89년 S.P.M 강화 골판지 제조장치 의장특허를 획득한 화성포장(주)은 93년 골게이터 1,800mm 증설로 94년 4도 인쇄기 및 가공자동라인을 설치하게 됐으며 올해 동남아 최초로 플렉소 프린트기를 도입하게 됐다.

지난해 9월10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프

리프린트기를 보며 박 사장은 “골판지상자는 보관과 수송기능 외에도 정밀한 인쇄효과로 제품과 기업이미지 선전 기능도 가지고 있어 인쇄의 품질은 곧 골판지상자의 품질과도 직결된다고 봅니다. 또한 정교하게 인쇄된 골판지상자는 압축강도에서도 우수하기 때문에 인쇄기술 향상에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갈수록 까다로운 인쇄품질의 요구는 단순히 인쇄 기술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좋은 골판지원단과 좋은 잉크, 좋은 인판이 인쇄기술과 접목될 때에 이루어 진다고 봅니다.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골판지를 예를 들어 보면 비교적 양면골판지(SW)의 경우 풀 접착에 문제가 없으나 이중양면 골판지(DW)는 풀 접착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품질의 원지 개발로 이중양면 골판지를 양면골판지로 대체하여 생산성 향상과 물류코스트 절감에 힘써야 합니다. 결국 소비자는 같은 품질이면 가격이 싼 제품을, 같은 가격이면 품질이 좋은 제품을 구입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법칙이 우리에게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품질의 차별화, 저원가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좋은 제품 만들자’라는 경영철학으로 25년간 ‘골’과 같이 생활해 온 박창원 사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지금 포장업체가 처한 현안의 해결점으로 다가온다.

‘신뢰받는 제품생산’의 사훈으로 현장직 56명과 사무직 12명으로 구성된 화성포장(주)은 따로 영업적을 두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포장이 곧 광고이기 때문이다. ☐

변준섭 기자